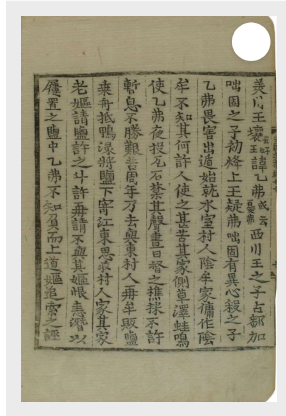


미천왕[美川王]

소금장수, 왕이 되다

미상 ~ 331년(고국천왕 1)



삼국사기(옥산서원본) 미천왕조

/ 한국사데이터베이스(국사편찬위원회) /

1 개요

미천왕은 고구려 제15대 왕이다. 아버지가 반역을 의심받아 자결 명령을 받아, 궁궐에서 도망쳐 머슴살이와 소금장수 등을 하면서 지냈다. 봉상왕(烽上王)이 실정을 거듭하자, 국상(國相) 창조리(倉助利) 등은 봉상왕을 폐위시키고, 민간에 있던 을불(乙弗, 미천왕)을 왕으로 옹립했다. 재위기간 동안 요동 서안평(西安平)을 차지하고, 낙랑군(樂浪郡)과 대방군(帶方郡) 지역을 차지하는 등 영토 확장에 힘썼다.

2 미천왕의 가계와 즉위 과정

미천왕은 호양왕(好讓王)이라고도 한다. 이름은 을불, 우불(憂弗) 혹은 을불리(乙弗利)이다. 제13대 서천왕(西川王)의 손자이며, 고추가(古鄒加) 돌고(咄固)의 아들이다. 돌고는 서천왕의 둘째 아들이자 제14대 봉상왕의 동생이다. 그러므로 봉상왕은 미천왕의 큰아버지가 된다. 아들로는 왕위를 계승한 고국원왕(故國原王)이 있다. 미천왕의 어머니와 왕비에 대한 기록은 전하지 않는다.

을불(미천왕)이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봉상왕이 의심과 시기심이 많아 인재들을 죽이는 등 실정을 거듭했기 때문이다. 292년(봉상왕 1), 봉상왕이 즉위한 후 처음으로 한 조치도 숙부인 안국군(安國君) 달가(達賈)를 죽인 일이었다. 달가는 서천왕 때 숙신(肅愼)의 공격을 막아내고 숙신의 부락들을 복속시켰다. 이 공으로 중앙과 지방의 군사 관련 일을 담당하면서, 백성들로부터도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었다. 이를 시기한 봉상왕은 음모를 꾸며 달가를 죽였다. 그 다음 해에는 아우인 돌고(咄固)가 반역의 뜻을 품고 있다고 의심해 자결하도록 하였다. 이 때 돌고의 아들인 을불(미천왕)은 들판으로 달아나 겨우 목숨만은 부지할 수 있었다.

을불은 처음에 수실촌(水室村) 음모(陰牟)의 집에 가서 머슴살이를 했는데, 밤낮으로 고된 일에 시달리다가 1년 만에 그 집을 떠났다. 그리고는 동촌(東村) 출신의 재모(再牟)와 함께 소금장사를 시작했다. 어느 날 압록강 변의 사수촌(思收村)이란 곳에서 하룻밤을 머물게 되었다. 집주인인 할매가 소금을 요구해 한 말을 주었는데, 더 달라고 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자 할매가 소금 속에 신발을 숨겨두었다. 다음 날 길을 떠났던 을불은 신발도둑으로 몰려 태형을 당하고, 소금도 빼앗겼다. 그리하여 을불은 왕손이라고는 짐작도 못할 정도로 얼굴이 야위고 남루한 행색으로 지내게 되었다.

관련자료